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는 밖에도 안에도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아무개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함원전 속, 금곡원 가운데로."

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云 你名什麼 云某甲 師云 舍元殿 裡金谷園中

함원전은 장안(서울)에 있는 당나라 궁전 중의 하나인데 그 건축 작품이 빼어났고, 금곡원은 낙양(洛陽) 가까이 있었던 진(晉)의 석승(石崇)이 만든 진귀한 명원(名園)을 말한다. 당시 함원전과 금곡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학승이 자기 이름을 말하자, 조주 선사는 이 두 작품을 하나로 보태어 함원전 속에 있는 금곡원이라고 평한 것이다. 매우 훌륭하고 시원하다는 평이다. 도대체 조주 선사는 학승의 무엇을 보았기에 당대에 유명한 두 작품과 같다고 평한 것일까? 조주 선사의 뜻을 아는 남자가 있는가? 만일 나에게 조주 선사의 뜻을 묻는다면, "조주 선사는 앞으로 7걸을 나갔는데, 그것은 뒤로 7걸을 나간 것이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7불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려고 생각하면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 곧 일어나는 자이다."

問 如何是七佛師 師云 要眠即眠 要起即起

7불은 석가모니불을 포함하여 과거에 성불한 일곱 부처를 말한다. 과거만 아니라, 현재 부처의 스승이며, 미래 부처의 스승이며, 모든 부처의 스승이 누구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성인의 진정한 스승인가?

조주 선사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은 적으니 어찌된 연고인가? 남자의 구도열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렇다. 열망이 깊으면 한 마디에 깨어나는 법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좌선 생활을 청산하라. 지금 즉시 선사를 찾아가서 생사대사를 결판을 내고 바로 붓다의 수행을 하라. 그대의 눈은 이미 붓다의 눈임을 명심하라.

학승이 물었다.
"도는 사물 바깥에 있지 않다. 혹은 사물 바깥에 도가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사물 바깥에 있는 도입니까?"

조주 스님이 곧 때렸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저를 때리지 마세요. 이후로 잘못하면 사 람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용과 뱀은 구별하기 쉬우나 남자를 속이는 일은 어렵 구나."

問 道非物外 物外非道 如何是物外道 師便打 云和高莫 打某甲 已後錯打人去在 師云 龍蛇易辨 衲子難瞞

원래 건공에게 흠됨이를 던지면 흠됨이를 쫓아가지만 사자에게 흠됨이를 던지면 던지는 자의 눈빛을 본다. 조주 스님은 도가 안 · 바깥에 있다느니 하는 허망한 말을 처내었고, 학승은 사악한 것은 일제히 쓸어내 버렸다.

도는 사물 바깥에도 없고 사물 안에도 없다. 도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작용한다. 조주 선사는 한 대 때렸고, 학승은 조주 선사의 뜻을 알아채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 어찌 용과 뱀이 한 판 판리는 결투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조주 스님은 낚시줄을 내렸고 학승은 낚시줄을 거두어들였으니 진정한 조실과 대중의 자리이다.

선원에 앉아있는 참 남자는 조실과 한관 승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입실하여 조실의 첫 범문에 즉시 깨닫고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짓밟아버린다. 그후 대중방에서 조용히 부처의 행을 수행할 뿐이다. 조실과 선방의 구분만 다를 뿐 누가 조실이고 누가 대중인가? 용과 뱀은 구별하기 쉬워도 이것은 구별하기 힘들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순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해 대만불교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사실 지금은 대만에서 불교의 위상은 매우 높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린 것은 아니다. 겨우 60년 정도 된다. 그렇지만 어떤 요인으로 대만불교는 그 사회에서 주류의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해답을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중간지도자 양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예컨대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최고지도자는 증엄(證嚴, 1937~) 스님이지만, 스님이 직접 400만 이상의 회원들을 다 만날 수는 없다. 스님을 대신 하여, 스님의 뜻과 원력을 전하는 중간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자제공덕회에서는 자제위원이라 부른다. 4만 명이다. 1명의 자제위원이 40명의 회원을 담당한다.

우리는 대개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아직 멀었다. 공부를 더 하고 나서,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되면, 그때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만약 자제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날 자제공덕회의 갖가지 불사(사회복지사업이나 재난구호 활동 등)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포교위기 역시 이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이며! 포교는 스님들만이 아니라, 재가불자 역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재가불자는 주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나는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좀더 알아야 해. 내가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저하기만 하고 용이있게 길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최초의 다섯비구 중의 한 분인 아삿지(Assaji, 馬勝) 비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나 묻는 사리불과 목련(이때 이들은 외도인 '산자

의'의 제자였다.)에게 아삿지 비구는 겸손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벗이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에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일야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빼알리 경전>, 80쪽)

아삿지 비구의 태도가 정답이다.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벗이여, 나는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르침과 계율에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말할 수



그림 · 박구원

는 없지만 간단히 그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부처님으로부터 「전법선언」, 즉 전법의 명령을 받은 60명의 제자들이 길을 떠났을 때 그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리라.

아삿지 비구가 전한 내용은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고 여래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80쪽)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 아삿지 비구처럼, 우리 역시 오늘 듣고 배운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간단히 그 뜻"만이라도 전해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중간지도자가 된다. 그러한 중간지도자들로 넘쳐날 때 우리나라 불교가 다시 태양처럼 높이 솟아오르게 되리라. 마치 대만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3>

팔정도-⑥정명(正命)

바른 직업 통해 바르고 규칙적 생활 하는 것

지키는 것으로 나뉜다.

첫째, 바른 직업은 바른 수단에 의해 의식주 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도박이나 투기 등 요행을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둘째, 바른 규칙적인 생활은 취침과 기상 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과 횟수, 식사의 양, 직장 등으로의 출근시간 및 공부, 운동, 휴식 등 그 밖의 모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을 유지시키고,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도 된다. 수면 식사 업무 운동 휴식 등에 관해 규칙적인 생활을 보냄으로써 건강과 일의 능률을 높이고,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정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2500여 년 전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도의 재가자들이나 지금의 재가자들이나 속세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삼보에 귀의 한 불자라면 정명을 수행하기 어려울 처지에 있거나, 계율과 나태함으로 번번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도 다시

발심해 도전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출가자의 정명은 어떻게? 원시불교 시대에서 출가자의 바른 생활은 걸식(乞食), 즉 탁발하는 생활을 의미했다. 무언가를 소유하겠다는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규칙적인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제한된 생활을 보냈다.

부처님은 또 출가자들에게 정명은 사명(邪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사명은 출가자의 신분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거나, 교묘한 말로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말하거나, 신(神)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숭배하게끔 하거나, 신동력을 빌자해 점술이나 예언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는 것 등이다. 정명은 이러한 사명이 없는 생활을 뜻한다.

재가자들 중에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명을 수행할 수 있냐며 어렵다고 손사래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불도를 닦으며 수행정진하고 있는 고승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승대덕들도 처음엔 우리와 같은 속세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몇 가지 규칙적인 작은 실천 정도는 못할 것도 없다.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NAVER D.O.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